

늘어가는 빨래방에 “동네 세탁소 살려~”

리류 관리기 등 1인 가구들에 인기...세탁소 매출 반토막 광주 5년간 342곳 폐점...평균 세탁료 6000원 전국 최저

29일 오후 8시 찾은 광산구 산정동의 한 '셀프 빨래방'. 24시간 무인 체제로 운영되는 이곳에는 고객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와 커피 자판기 등이 구비돼 있다. 이 일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 등으로 안내문이 비치돼있다.

이날 만난 김현주(32)씨는 “퇴근한 뒤 이불빨래를 건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셀프 빨래방을 더러 찾는 편”이라며 “요금도 1만원 안팎으로 저렴한 편이고 멤버십 카드를 충전해 결제하는 방식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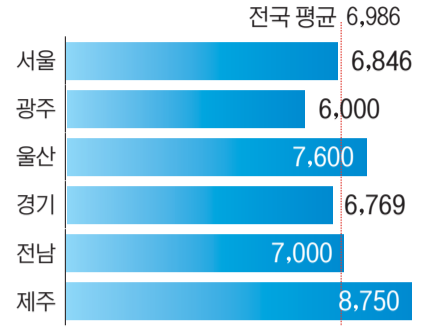
1인 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광주지역에도 '코인(동전) 빨래방' '셀프 빨래방' 등이 잇따라 생겨나고 가전업체는 미세먼지 심각성이 대두되자 의류 관리기를 앞다뒀다

놓고 있다. '셀프 빨래방' 인기에 힘입어 2017년 24개, 2018년 24개, 올해 15개 등 광주지역에는 세탁업소(세탁소, 셀프·동전 빨래방)가 꾸준히 생겨나고 있지만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해온 세탁업자들은 손님을 잃어 매출이 반토막 났다. 광주지역 5개 이마트의 10월1~29일 리류 관리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3.3% 급증했다.

30일 국제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광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세탁소는 847개이다. 구별로 보면 북구가 272개로 가장 많고 광산구 206개, 서구 103개, 남구 102개, 동구 74개가 뒤를 이었다. (사)한국세탁업중앙회 광주지회는 이들 업소 가운데 10~15% 정도인 100곳 안팎이 셀프 빨래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셀프 빨래방과 프랜차이즈 체인(가평점)이 골목 곳곳에 들어서면서 동네 세탁

■지역별 평균 세탁 요금 (단위:원)



소는 직격탄을 맞았다. 광주지역에서는 올해 42개를 포함해 최근 5년간 342개 세탁소가 문을 닫았다. 남구 방림동에서 33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해온 방성근(61)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광주지회장은 세탁업소가 넘쳐나면서 '제 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회장이 운영하는 세탁소에는 5년 전 하루에만 30여 명의 고객이 찾았지만 현재 발걸음이 절반으로 뚝 끊겼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9월 광주 평균 세탁료는 6000원으로 3년 연속 전국 꼴지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6986원을 크게 밑돌고 제주 8750원, 서울 6846원, 전남 7000원 보다 낮았다.

방 회장은 “신사복 한 벌을 세탁할 때 받는 비용은 10년 전 구경이 권고했던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가게만 해도 반경 500m 안에 동전 빨래방과 프랜차이즈가 3곳이나 생겨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광주시로부터 70여개 업소가 옷걸이 등 기자재 구입비를 받은 것이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유일한 지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도움 받을 길을 몰았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제도는 현재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중위생업 가운데 가장 힘이 없는 세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가격 정상화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80.27 (-12.42) ↓ 금리(국고채 3년) 1.48 (-0.02)
- ↓ 코스닥 655.04 (-3.26) ↑ 환율(USD) 1168.10(+5.10)



광주은행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후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30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16층에서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최영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백혈병·소아암 환자의 완치 및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는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오는 11월 12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소아암 환아와 가족, 후원자가 함께하는 자선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광주은행은 전달식을 통해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돕고자 5백만 원을 후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였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우리지역 어린이들이 깨끗하게 병마를 이겨내고 마음

껏 꿈을 키울 수 있길 기원하며,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9월부터 10월 까지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광주기독병원 어린이병동에 차례로 환아복을 후원함으로써 총 3000만원 상당의 환아복 1,800벌을 전달했다. 또한 지역 내 저소득가정 및 환경이 열악한 아동보육시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주고,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과 대학 입학 전까지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을 후원하는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등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기아차,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 1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114개 출품작 중 최고 점수

기아차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 1위를 수상했다.

기아자동차는 30일 서울 그랜드호텔에서 한국경영인중원이 주최한 ‘2019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자사의 ‘2019 지속가능경영 보고서(MOVE)’가 보고서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성과 및 발전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체 114개 출품작 중 1위에 올랐다.

기아차 보고서는 중요성(86.9점), 이해가능성(94.05점), 신뢰성(84.52점) 부문에서 전체 평균(75.46점)을 크게 웃돈 총점 89.2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지속가능경영 전략 공개, 성과 지표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을 비롯해 정보의

신뢰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아차는 지난 2003년 이후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회사의 의지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7월 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이 주관하는 ‘2018 LACP 비전 어워드’에서 8개 평가 부문 중 첫 시상, 표지 디자인, 최고 경영자 메시지, 내용 구성, 재무 보고, 창의성, 정보의 접근성 등 7개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기아차의 비전, 지속가능경영의 실천 의지를 담고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성과 및 발전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읽기 쉬운 보고서로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광주 설명회 다음달 26일 무역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 광주시 광산구 무역회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는 12월10일 오후 2시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도 참여한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 내용과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 1대 1 상담, 건의사항 등도 받는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5차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특례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 실험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딥러닝 3D 프린트’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 등을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줌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유예제도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전, 재난 대비 실전같은 훈련



한전 KPS 직원들이 29일 하동 훈련장에서 자주조립식 모듈형 철주를 이용해 전력시설을 복구 시연을 벌이고 있다. <한전 제공>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을 맞아 29일 경남본부 하동 훈련장에서 초동대처 및 실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훈련 및 토론 훈련을 통해 전력분야 위기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훈련에는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하동군청, 소방서, 경찰서, 육군 39사단, 전력거래소, 한전KPS 등 관계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 훈련은 345kV 송전철탑이 집중 호우 및 지진에 의해 넘어져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재난상황을 가정해 한전에서 자체 개발한 자주조립식 모듈형 철주를 활용, 전력시설을 복구하는 훈련을 펼쳤다.

토론 훈련에서는 전력설비 고장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과 대응수칙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와 상황전파 등 보고체계를 점검

하고, 유관 기관과의 역할과 임무 등 협업 가능성에 대한 토의를 통해 효율적인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중갑 사장은 “재난은 언제 어떤식으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훈련을 통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규모 및 복구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한 대응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참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